레미콘 업계, 운반비 폭등·파업에 '휘청'

레미콘 트럭 진입장벽 높아 12년째 신규 등록 중단
집단 파업에 운반비 69% 올라
번호판 암시장 거래도 성행
노후차 많아 미세먼지 상습 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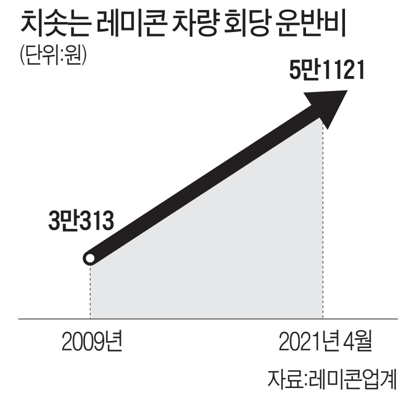
강원 원주지역의 레미콘 운송차량 노동조합은 지난달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중장비를 동원해 레미콘 공장 입구를 봉쇄했다. 레미콘업계 제공

지난달 중순 강원 원주지역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진입하려는 레미콘 운송차(콘크리트 믹서트럭)와 이를 막아선 운송노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 노조원이 레미콘 차량에 스스로 부딪친 뒤 드러누워 난동을 부렸다. 운반비 인상에 동조하지 않는 레미콘 운송차주에게 앙심을 품고 공급을 방해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2년째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레미콘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잦은 파업에 나서는 데다 운반비를 크게 올리고 있어서다. 레미콘 운송차량의 불법 번호판 거래,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차량노조 툭하면 파업…운반비 급등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만4526대인데 2만1419대만 운행되고 있어 부족한 상태다. 레미콘 운반비는 2009년 회당 3만313원에서 4월 현재 5만1121원으로 12년간 68.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레미콘공장 수는 21.3%, 레미콘 가격은 10.5% 증가한 것에 비해 가파른 상승폭이다. 레미콘 운송노조가 매년 운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을 벌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레미콘업체 사장은 "사실상 공급 독점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운반비를 안 올려준 업체가 작년에 집단 운송 거부로 폐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총량제로 묶이다 보니 기존 사업권이 높은 가격을 주고 매매되는 암시장도 형성된 상태다. 사업자가 은퇴할 경우 신규 진입이 가능한데, 차량 구입비에 최고 4000만원의 번호판 프리미엄(웃돈)을 얹어줘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레미콘 운송차주를 상대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세 확장 경쟁을 벌이면서 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원주에선 운반비 인상과 레미콘 운송차주 간 일자리 배정 문제 등을 놓고 양대 노총이 충돌해 인근 건설현장과 레미콘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레미콘 운송차량의 신규 진입이 막히면서 안전과 환경 등 사회적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레미콘공업협회에 따르면 10년 이상 노후 차량 비중이 전체의 40%이고, 20년 이상 비중도 14%에 달했다. 2019년 경기 용인에선 노후화된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29중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버스는 차령이 11년 이상이면 안전 문제 때문에 무조건 운행을 중단하지만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한 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4㎏인 데 비해 덤프와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15㎏으로 약 11배 높다.

◆"운송차량 진입장벽 철폐해야"

레미콘업계는 국토부가 레미콘 운송차량의 진입장벽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대여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를 도입됐다. 굴삭기 불도저 등 27종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수급 조절 여부를 심의한다.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덤프트럭만 유일하게 2009년부터 12년간 신규 진입이 금지됐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레미콘은 전체 925개 업체 중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5만여 명의 레미콘업계 종사자는 도외시한 채 2만여 명의 임대업자(운송차주)에게 유리하도록 공급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조업체들도 시장 불균형의 문제점 개선을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레미콘업계도 "직접 이해당사자인데도 한번도 수급조절위원회 위원(15명)에 포함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수급조절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치매 신약 연내 美 3상 추진"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
원인별 맞춤 치료제 개발 목표
내년 기술특례 상장 예정

"국산 치매 치료제를 미국에서 내놓겠습니다. 임상 2상 중간 결과에서 약효를 확인했습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사진)는 11일 기자와 만나 "올해 안에 미국 임상 3상 계획을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리바이오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20년 이상 생명공학을 연구한 정 대표가 2010년 세운 신약 개발 기업이다. 원인별 맞춤형 치매 치료제를 내놓는 게 목표다.

치매는 암과 함께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대표 질환이다.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등 다섯 가지 성분의 치료제가 나와 있지만 두세 달 이상 투약하면 호전되던 증상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업계에서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완화제'로 부르는 이유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다국적 제약사도 임상 3상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6월엔 FDA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아두카누맙의 최종 심사 결정을 내린다.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이미 반대표를 던진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리바이오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개발 중인 AR1001의 미국 임상 2상에서 지난달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경증 및 중등증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진행한 임상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심각한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다. 정 대표는 "오는 7월께 12개월 투약 결과를 분석한 데이터가 나온다"며 "결과를 받는 대로 미국 임상 3상과 기술수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의 치매 치료제는 다중기작 약물이다. 다중기작은 하나의 약물로 2개 이상의 표적 부위에서 치료 효과를 내는 방식이다. AR1001은 뇌신경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신호전달물질 다수를 자극한다. 정 대표는 "AR1001은 뇌세포로 외부물질이 전달되는 걸 막는 뇌혈관장벽(BBB)을 잘 통과할 수 있다"며 "환자 750명을 대상으로 할 임상 3상에선 다른 약물과의 병용 투여 효과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아리바이오는 내년 상반기 기술특례 상장에 나설 예정이다. 올 3분기 기술성 평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치매 환자의 10%에 해당하는 혈관성 치매에 AR1001을 사용하는 임상도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암이 부위별, 크기별로 다양한 암종으로 나뉘듯 치매도 종류가 세분화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으로 치매 치료에 쓸 수 있는 생체표지자(바이오마커)를 발굴하고 약물들의 다양한 작용 기전을 밝혀내 치매 유형별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제올라이트, 알코올·염소 안쓰고 99% 항균

으뜸중기 네오팜그린

피부 자극 거의 없어

제올라이트는 0.3~1㎚(나노미터·1㎚=10억분의 1m) 크기의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이다. 산업에선 주로 흡착제나 촉매제로, 의학 분야에선 주사 매개체로 쓰인다. 경기 안산에 있는 네오팜그린은 독자적인 제올라이트 촉매 치환기술을 적용한 분사형 소독제 제올루션 브이제로(사진)를 작년 12월 출시했다.

네오팜그린은 2019년 제올라이트에 촉매 치환 기술을 적용한 독자적인 제올라이트 기술을 개발했다. 제올라이트가 발산하는 전자기장의 미세파장으로 세균, 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집중 사멸시키는 기술이다.

네오팜그린의 제올루션 브이제로는 이 기술을 적용한 분사형 소독제다. 피부 세포가 아니라 세균 세포막에만 미세 전자기장으로 지속적인 자극을 주면서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을 99% 이상 사멸시키는 제품이다. 제올루션 브이제로의 성분은 99% 이상 정제수로 이뤄진다. 알코올, 염소계 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무색·무취이면서 인체 자극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이 제품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피부 자극성 및 부식성, 섭취에 의한 독성, 흡입 독성 등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했다. 제품 용량은 50mL~10L 일곱 가지로 다양하다.

한 번 뿌리면 72시간 동안 소독력이 지속되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이다. 네오팜그린 관계자는 "휘발성 성분으로 제조해 소독력이 순간적인 기존 제품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올루션 브이제로의 품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네오팜그린은 제품 출시 초기부터 이 제품으로 월 약 8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공공기관, 교육시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대량 구매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회사 측은 보고 있다. 네오팜그린은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식물 영양제 및 비료도 개발 중이다. 독자적인 제올라이트 촉매 치환기술을 활용해 농업계의 고민거리인 식물병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건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기계설비협회, 온라인 교육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및 수첩 발급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온라인 교육을 수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3만㎡ 또는 2000가구 이상 규모의 기존 건물은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앞으로 신축 및 증축 건물은 완공일부터 30일 안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게 됐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은 건물 관리 주체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공기조화장치, 냉난방설비 등을 점검 및 관리하는 기술인력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中企 60% "하반기 신규채용하겠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올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60.1%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참괜찮은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중소기업 815곳이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 기업의 채용 예정 인원은 평균 4.8명으로 조사됐다.

채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9.4%,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응답은 10.4%로 집계됐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그 이유로 '코로나19 등 경기 불확실성 및 일감 감소'를 꼽았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지난해 원하는 만큼 채용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소기업의 46.5%가 "지난해 필요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채용했다"고 답했다.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 부족'(49.8%), '채용 홍보 부족'(44%) 등의 답이 많았다.

백동욱 중소기업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플랫폼을 고도화함으로써 인력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 인재를 연결해 청년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원주시 공고 제2021-1087호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공사 보상계획 열람 공고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원 주 시 장

1. 공익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 기간	사업 규모	사업 위치
둔전길(남원주역세권-대로1-5호선) 확포장공사	원주시장	2021년 ~ 2022년	L : 670m B : 25m~50m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89-4번지 일원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589-4번지 등 필지 및 관련 권리 일체와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아래 기재 된 열람 장소에 비치됩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 2021년 4월 12일 ~ 2021년 4월 26일 (14일간) 09:00~18:00
나.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장소
■ 원주시청 도시주택국 균형개발과(2층)(☎033-737-3915, 3923)
■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4. 보상 시기 : 2021. 5. ~ (추후 개별 통보)
◆ 대상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보상합니다.
◆ 법 제68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각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4항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계좌 입금
◆ 편입 토지 내역

소 재 지	관련지번(편입면적, 단위:㎡)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illegible]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illegible]

■ 편입면적은 향후 지적공사 분할 측량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음.

6. 기 타
◆ 세부 물건조서 열람 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지장물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개별통지는 현재 확인된 주소로 통지하게 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균형개발과 균형개발담당(원주시 시청로 1, ☎033-737-3915, 39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illegible]
주식회사 피엔티 대표이사 황원재

제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0년 12월 31일 현재
[illegible]
2021년 4월 12일
(주)ABB파워그리드코리아 대표이사 최석환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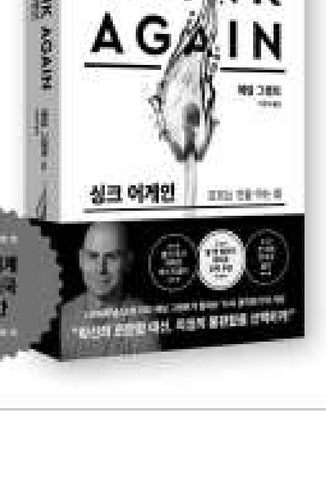
본 회사는 2021년 4월 8일 사원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56,150,190,000원을 금 47,150,19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1좌의 금액금 10,000원의 출자좌 900,000좌를 유상소각하여 총 출자좌수를 4,715,019좌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들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8길 60(역삼동)
씨에스에스씨케이코리아 유한회사 대표이사 김재석

자본감소에 관한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및 구주권 제출 공고
[illegible]
2021년 4월 12일
주식회사 케이엠에스 대표이사 김국환

인생을 바꾸는 생각의 힘— 걱정 말고 '긍정' 하라
생각을 통제할 것인가, 통제당할 것인가?
긍정을 이끌어내는 스위치
생각이 바뀌는 순간
캐서린 A. 샌더슨 지음 | 값 16,000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오리지널스》 애덤 그랜트의 5년 만의 신작
《싱크 어게인》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정을 의심하라!"
와튼스쿨 최연소 종신교수이자 도발적 경영사상가 애덤 그랜트가
지금껏 갖고 있던 모든 믿음과 지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다!
✔ '다시 생각하기'는 새로운 통찰의 기술이다
✔ '다시 생각하기'는 소통과 이해의 기술이 된다
✔ '다시 생각하기'로 버릴 시점을 아는 것이 지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빌 게이츠 강력 추천
전 세계 32개국 출간


모르는 것을 아는 힘 싱크 어게인
애덤 그랜트 지음 | 이경식 옮김 | 값 19,800원 | 한국경제신문